

< 儒教 倫理 思想의 展開 >

1. 秦代 以後 儒教 思想

- ① 秦代: 法家의 富國強兵策 重視 ⇒ 焚書坑儒로 因한 思想界의 萎縮
 - 法家와 兵家의 富國強兵策이 中侍됨
 - 焚書坑儒로 因하여 儒學이 沈滯됨
- ② 漢代
 - 儒學者 董仲舒의 建議로 儒學이 國學으로 인정됨에 따라 教育 政策의 中心이 됨
 - 焚書坑儒로 소실된 經典을 復원하는 經學과 그 內容에 대한 註釋을 하는 訓詁學이 발달함
 - 儒學이 공인되고 孔子가 신격화되면서 皇帝의 權威 역시 함께 絶對化됨
- ③ 唐代
 - 佛敎와 道家 思想이 널리 流行하면서 儒學의 學風이 시들게 됨
 - 韓愈: 儒學의 道統을 세워 儒學의 줄기를 정리함
- ④ 宋代
 - 北宋 時代: 周敦頤, 程顥, 程頤, 張載, 邵雍 등의 儒學者가 性理學의 기틀을 세움
 - 南宋 時代: 朱熹가 孟子의 性善說과 北宋 儒學者들의 性卽理說을 계승함(佛敎·道家 일부 수용) ⇒ 性理學 = 朱子學 = 程朱學 = 道學을 集大成함

2. 宋代의 性理學(朱熹): 孟子의 性善說과 北宋 儒學者들의 性卽理說 계승(佛敎·道家 일부 수용)

① 理氣論(宇宙論)

- 理와 氣의 의미

理	- 萬物을 낳는 根本 原理로, 絶對的 가치를 지님 ⇒ 純善無惡 - 宇宙 萬物의 根源인 太極 = 形而上의 道
氣	- 萬物을 이루는 재료로, 相對的 가치를 지님 ⇒ 可善可惡 - 太極이 낳은 陰陽 = 形而下의 氣

- 萬物은 理와 氣가 結合함으로써 이루어짐

理同氣異	- 萬物에 內在한 理는 同一하지만 氣는 서로 다름 - 氣에는 清濁粹駁의 差異가 있음 ⇒ 惡, 不善, 不完全性의 原因은 氣임
理一分殊	- 하나의 理가 萬物에 나뉘어 들어감(理의 보편성, 氣의 특수성) - 萬物은 모두 하나의 理를 稟受하여 그것으로 自身의 性을 이룸

- 理와 氣의 關係

理氣不相離	理와 氣는 具體的 事物에서 別개로 分離될 수 없음 [현실상]
理氣不相雜	理와 氣는 論理的 次元에서 명확히 區分됨 [개념상]

② 心性論

- 心統性情: 心은 性과 情을 거느림
 - 心은 性과 情을 포괄하며[心兼性情], 性과 情을 주재함[心主性情]
 - 性(本性)은 心의 本體[體]이며, 情(感情)은 心의 作用[用]임
- 天은 萬物이 생겨날 때 天理를 부여하며, 萬物은 天理를 性으로 삼음
 - 事物: 物理的인 事物 + 君臣關係, 父子關係 등의 人間關係(구체적 사건의 상황, 關係)
 - 各各의 事物(君臣關係, 親舊關係, 父子關係)에 各各의 理致(忠, 信, 孝)가 존재함
- 性卽理: 人間의 本性이 곧 理(天理 = 絶對善 = 仁義禮智의 四德)임

◦ 性

本然之性 [理 = 天理]	- 氣質로부터 理를 分離시켜 말한 純善無惡한 性 - 理 = 天理 = 絶對善 = 仁義禮智의 四德 - 本然之性은 人間과 事物이 모두 지니므로, 萬物에 仁義禮智가 內在함			
氣質之性 [理 + 氣]	- 本然之性이 氣質의 영향을 받은 可善可惡한 性 - 理同氣異: 理는 同一하며, 氣質로 인하여 差異가 나타남			
	通하고 正한 氣質	清한 氣質	聖人	修養이란 氣質의 교정
		濁한 氣質	凡人	
	塞하고 偏한 氣質	事物		

◦ 情

四端	- 惻隱, 羞惡, 辭讓, 是非 - 端緒說: 四端은 四德의 存在를 알 수 있는 실마리(端緒)임
七情	喜, 怒, 哀, 懼, 愛, 惡, 欲

◦ 性和 情의 關係: 性發爲情

性[未發心]	仁	義	禮	智
↓	↓	↓	↓	↓
情[已發心]	惻隱	羞惡	辭讓	是非

③ 修養論: 氣質을 변화시키는 것이지, 氣質之性을 本然之性으로 또는 七情을 四端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

居敬窮理	- 경건한 마음의 자세로 物理를 探究·窮究함 - 人間에게는 선천적 良知가 있으나 良知는 그 자체로 至極하지 않음 ⇒ 알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窮究가 필요함	
存天理去人欲	天理를 保存하고 人慾·私慾을 除去함	
存養省察	- 良心을 保存하고 本性을 省察함 - 未發心에서는 存養, 已發心에서는 省察함	
格物致知	格物	事物에 나아가 理致를 探究(이론적·경험적 探究)
	致知	나의 앎을 극진히 하여 알지 못하는 바가 없게 함
	- 自身을 포함한 世界의 참모습을 밝게 앎 - 必要性: 사람에게는 良知가 있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임 - 豁然貫通: 내 마음 속 天理가 밝혀진 상태	

◦ 知와 行의 關係

- 知行並進: 知와 行은 함께 나아감(눈과 발의 關係)
- 先知後行: 先後를 따지자면 知가 먼저임
- 重行輕知: 輕重을 따지자면 行이 더 重要함

④ 經世論: 修己安人의 原理에 근거하여 政治와 社會 問題를 解決하고자 함

3. 明代의 陽明學(王守仁): 陸九淵의 心學을 계승하여, 朱熹의 性即理說·格物致知說을 批判함

① 心即理說

- 인간의 心이 곧 하늘의 理임

朱熹	王守仁
心에는 理가 內在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, 心에는 理氣가 함께 존재하므로 心이 理 그 自體일 수는 없음	- 私慾이 없는 心(本心)이 곧 마음의 本體로서 性이며, 性이 곧 理致임 - 心(本心)이 곧 理임
心の 本體는 性이고, 性이 곧 理임	

- 良知: 天理(마음의 本體)로, 이미 그 자체로 至極한 淸
- 모두에게 內在된 선천적인 淸 ⇒ 획득되거나 형성되지 않으며, 모든 사람이 聖인이 될 수 있는 근거
- 是非之心(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음을 좋아하는 마음)으로, 個人이 가진 道德判斷의 準則
- 心外無理 心外無物: 마음 밖에는 理致가 없고, 마음 밖에는 事物도 없음

朱熹	王守仁
事物[物理的 事物 + 具體的 關係]에 理致가 존재함	事物은 理致를 心으로부터 얻음
父子關係에는 父子關係의 理致(孝)가, 君臣關係에는 君臣關係의 理致(忠)가, 交友關係에는 交友關係의 理致(信)가 존재함	父子關係, 君臣關係, 交友關係 그 자체에는 원래 理致가 존재하지 않으며, 내가 良知(是非之心)를 발휘할 때 關係에 理致가 생겨남

cf. 孝道の 心이 있기에 孝道の 理致가 있고, 忠誠의 心이 있기에 忠誠의 理致가 있음

② 修養論

致良知說	- 私慾을 克服하고 良知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휘해야 함(存天理 去人欲) ex. 내 마음을 父母에게는 孝로, 임금에게는 忠으로 발휘해야 함 - 窮理: 마음의 理致(良知)를 극진히 발휘하는 것 - 格物致知: 良知를 事物에 발휘하여 마음이 있는 곳의 일을 바로잡음
知行合一說	- 知는 行의 시작이고, 行은 知의 完成임 ⇒ 知와 行은 본래 하나임 - 知는 行의 眞切篤實한 면, 行은 知의 明覺精察한 면

4. 性理學과 陽明學 比較

① 性理學과 陽明學 比較

	性理學	陽明學		
性·心·理	性卽理	心卽理		
天理	心の 本體[性]에 존재하는 仁義禮智	心の 本體[性]에 존재하는 良知		
道德의 근거	性	心		
良知	- 있으나 완벽하지 못함 - 이론적 探究를 통해 完全해짐	- 그 자체로 지극한 眞(天理) - 극진히 발휘하기만 하면 됨		
物理	各各의 事物에 理致가 존재함	事物은 理致를 心으로부터 얻음		
格物致知	格	~에 이르러, 도달하다, 궁구하다[至]	格	바르게 하다[正]
	物	이치를 지닌 사물·현상	物	마음의 일(생각)이 있는 곳[事]
	致	지극히 하다, 推極하다	致	지극히 하다, 실현하다, 발휘하다
	知	眞, 지식	知	마음속의 良知
	事物에 나아가 理致를 探究하여[格物], 나의 眞을 극진히 하는 것[致知]		良知를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일[事]을 바로 잡는[正] 것	
窮理	事物의 理致를 探究하는 것	良知를 극진히 발휘하는 것		
知行	知行竝進, 先知後行	知行合一		
共通點	- 마음이 몸을 主宰함 - 天理는 心の 本體인 性에 부여됨(心에는 天理가 稟賦되어 있음) - 心の 本體는 性이고, 性이 곧 理임 - 學問의 目的은 聖人이 되는 것이며, 이를 위해 格物致知, 存天理去人欲이 必要함 - 知行一致: 知와 行의 一致를 추구함			

- ② 性理學에 대한 陽明學의 批判: 心과 理를 分離시키며, 知行의 乖離를 초래함
- ③ 陽明學에 대한 性理學의 批判: 理論的 探究(事物에 대한 지식 축적)에 疏忽함

5. 清代의 考證學

- ① 既存의 性理學과 陽明學이 空虛한 理論에 치우치는 것을 批判함
cf. 陽明學에 대한 批判: 옛 聖人에 依存하여 창조성을 抑壓하며, 虛僞를 장려함
- ② 客觀的이고 實證的인 學問 研究 態度를 志向함
- ③ 經世致用: 世上을 經營하고 현실적 問題를 효과적으로 解決함
- ④ 實事求是: 實質的인 일에 나아가 眞을 구함
- ⑤ 影響: 金石學의 발달, 文字學과 편찬 作業의 활발, 四庫全書 간행

6. 清代 以後 東西洋에서의 有敎의 展開

① 清代 以後 東洋에서의 儒敎

- 中國: 共產黨 政權 樹立 以後 批判받았지만, 最近 儒敎 復興 運動이 추진되고 있음
- 韓國: 共同體主義的인 儒敎 德目이 社會·文化 底邊에 강조되고 있음
- 日本: 江戸 時代에는 性理學이, 明治 時代부터는 陽明學이 큰 역할을 함

② 西洋에서의 儒敎

- 17世紀 啓蒙主義 思想家들과 基督教 宣敎師들을 통해 소개됨
- 帝國主義 時代에는 儒敎 思想을 '東洋 文化가 停滯된 主要 原因'으로 파악함

③ 20世紀 中後半 儒敎 資本主義論(亞細亞的 價値)

- 儒敎 文化的 特性이 東亞細亞 國家의 資本主義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는 주장
- 禮義, 恭遜, 誠實性, 共同體에 대한 獻身, 國家에 대한 忠誠 등
- 儒敎的 禁慾主義와 經濟的 利潤 추구를 結合 可能的 것으로 봄